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3

통권 36호

March 2008

| 이달의 이슈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
장 윤 중(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 선임연구위원)

| 경제포커스 |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이 흥 식(안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안
전 영 재(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 생생리포트 |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nnobiz) 기업 현황
박 희 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권 태 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 자치구탐방 |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박 기 순(용산구청 재정경제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부동산/금융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8. 3

차 례

이달의 이슈	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 장윤중(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 선임연구위원)
경제포커스	11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이홍식(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2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 전영재(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생생리포트	35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nnobiz) 기업 현황 박희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권태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자치구탐방	49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박기순(용산구청 재정경제국장)
경제동향	57	요 약
	58	경 기
	66	고 용
	74	부동산
	82	금 융
부록	93	통계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



장윤중*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 선임연구위원

jang@kiet.re.kr

새로 출범한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중시해오기는 했지만, 신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투자유치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기대해봄직 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세계 전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국내 투자유입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부가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으나 국내외 매스컴에서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 외자 정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어디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까? 사실, 묘수는 없는 것 같다. 외국기업들이 단 시간에 대거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묘안이 있었다면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조금하계 성과를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우리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풀어나가는 예지가 요구된다.

* 저자 학력, 경력 :

- 프랑스 Paris X-Nanterre 大學 경제학 박사
- 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 현 현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자문위원

I.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한국산업 생존전략의 일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졌듯이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과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국내에 파급해주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가 투자유치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산업의 생존전략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 산업은 중국의 추격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현재와 같은 입지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나갈 수 있을 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최근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나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국내기업과 국내역량 중심의 발전전략만으로 과연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거나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선진기업들의 유치를 통해 압축성장과 산업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고, 일본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해외투자를 통해 무역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와의 간격을 더욱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두 나라 모두 비록 방향성은 다르지만 최근 전개되는 글로벌화의 이점(benefit of globalization)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국내 산업에 해외 선진기업들의 역량을 접목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면 선진기업들의 역량이 국내 산업에 접목되고, 우리산업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숙지하게 된다면 투자유치에 대한 시각과 열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II.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출발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산업간의 접목과 그를 토대로 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둔다면, 유치 정책은 접목(linkage)의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접목의 수준은 거래양식의 3개 형태*를 참조하여 시장에 의한 접목, 네트워크에 의한 접목, 위계에 의한 접목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시장에 의한 접목이란 우리가 흔히 보는 형태로서 외국기업이 시장거래를 통해서 국내산업과 연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상응한 유치정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양적 확대로서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이 핵심을 이룬다. 네트워크에 의한 접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과 단순한 시장거래 이상의 관계, 예를 들면 전략적 제휴, 조달 혹은 판매 계약,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계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상응한 유치정책은 협력 및 제휴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끝으로 위계에 의한 접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함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의 글로벌 혹은 지역 거점(hub)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한 유치정책은 거점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제1단계 정책인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신정부에서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은 비단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이 글로벌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글로벌화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생산주체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이다. 즉, 생산활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생산물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형태가 과거 국제관계의 주류였다면 지금은 생산주체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면서 생산활동 자체가 옮겨 다니는 형태가 국제관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점점 더 입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foot loose) 현상이 보편화되면 기업친화적 환경을 갖추지 않고서는 산업발전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투자유치 정책의 두 번째 단계는 기업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통한 단순한 유치의 증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산업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생산과 고용의 증대가 일반적인 목표라면 한국산업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확보하기

* 거래양식의 3개 형태는 market, network, hierarchy이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산업 간의 연계 강화가 투자유치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매개로 해외 모기업과 국내산업 간의 연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해외 모기업은 국내산업의 역량을, 국내 산업은 해외 모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면서 상생의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음 단계인 거점화라고 할 수 있다.

III. 글로벌 거점화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최종 목표

투자유치 정책의 가장 최상의 단계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매개로 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거점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최근 나타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새로운 경향은 이러한 정책방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를 해외에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외의 자회사는 모기업의 경쟁우위를 토대로 현지에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장해나간다. 그런데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져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는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해외의 역량을 습득하고 활용하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새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이 중국과 인도에 R&D 센터를 많이 설립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모기업 우위 활용형과 새로운 현지 역량 활용형 외국인직접투자의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전자는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후자는 모기업과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이다. 즉, 현지 역량 활용형 투자는 모기업 입장에서 볼 때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 거점으로 인식한다. 반면, 모기업 우위 활용형 투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존재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로운 지평은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현지 역량 활용형 투자의 유치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연계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글로벌 거점화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태를 평가해보면, 전반적으로는 모기업 우위 활용형 투자가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글로벌 연계거점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지닌 분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외환위기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방식

으로 진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영우위를 국내 자회사에 접목하여 인수기업을 경쟁력과 잠재력을 지닌 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글로벌 연계거점으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난 몇 년간 범정부적으로 R&D 센터 유치에 적극 나선 결과 세계적인 연구센터들의 국내 진출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은 IT와 바이오 분야에 특히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끝으로,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상당수는 국내 수출대기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점은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모기업의 글로벌 연계거점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국내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우수인력 등 국내의 혁신역량이 더 풍부해져야 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글로벌 연계거점으로서의 발전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IV. 서울의 역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궁극적인 목표를 글로벌 연계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라고 할 때, 그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서울의 역할은 무엇일까? 가장 시급한 것으로 우수한 해외인력들이 우리나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외국인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또한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도 자주 듣는다. 의사소통, 생활여건, 자녀교육, 문화생활 등 많은 분야에서 그 만큼 불편이 크기 때문일 것이며 그러한 불편을 상쇄할 만한 매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해외의 우수인력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글로벌 거점을 생각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이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

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추이다. 서울이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지 않고서는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서울을 외국인들이 선망하는 세계도시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즉시 전개해야 할 것이다. **SDI**